

“호텔 숙박권부터 추가 데이터·중고폰 보상까지 혜택 풍성”

갤럭시 Z8 사전개통

통신3사, 사전예약 현황 분석 결과 시리즈 중 Z 폴드8 선호도 가장 높아 KT, 초이스 더블 요금제 경품 제공 SKT, 중고폰 반납 시 최대 100만원 LG U+, 사전예약 할인쿠폰 ‘인기’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신규 스마트폰 ‘갤럭시 Z’ 시리즈 개통을 동시에 시작한다. 사전예약 기간 동안에는 콘텐츠 시청 활용도를 높인 ‘폴드8’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갤럭시Z8시리즈 사전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개통을 시작한다.

통신 3사가 사전예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



모델들이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을 살펴보고 있다.

/KT

3종 중 ‘갤럭시 Z 폴드8’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휴대폰을 접었을때 여권과 유사한 사이즈여서 출시 전부터 화제를 모은 모델이다. 특히 각종 영상 콘텐츠를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는 4:3 화면비를 적용한 것이 인기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날 개통을 시작으로 통신 3사는 다양

한 혜택을 마련했다.

KT는 초이스 더블 요금제 가입 고객 중 총 888명을 추첨해 5성급 호텔 2박 숙박권, 신세계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한다. 초이스 더블 요금제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또는 갤럭시 디바이스 등을 조합한 결합 상품이다.

제품 구매 후 기존에 쓰던 모델을 가족 구성원에게 물려면 최대 12개월 동안 데이터 월 2000MB를 제공하는 ‘가족폰 이 어쓰기’ 혜택도 있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당 단말기에서 ‘사장이지’ 앱에 신규 가입하면 네이버페이 1만 포인트를 선착순 3000명에게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이달 말까지 갤럭시 Z 시리즈 단말기로 넷플릭스 요금제에 가입한 후 계정 연결을 마친 고객을 대상으로 네이버페이(1만원) 포인트를 지급한다.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와 연계한 경품 혜택을 추첨을 통해 총 3055명의 고객에게 제공한다.

특히 ‘민트 안심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폴더블 모델 구매 시 사용하던 중고폰을 반납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가족폰 나눠쓰기 부가 서비스도 무료 가입할 수 있다. 부모가 사용하던 기기를 만 13세 이하 자녀에게 물려주면 1년 간 매월 2GB 데이터 쿠폰, T우주패스 구독료

50% 할인(최대 6회) 혜택 등을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온라인 전용 할인 등 구매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사전예약 기간 고객들은 공식온라인스토어 전용 혜택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온라인몰에서 사전 예약 즉시 지급한 할인 쿠폰 사용률은 전 시리즈 대비 40% 증가했다.

또한 사전 개통을 진행한 고객을 대상으로 중고폰 반납 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달 31일까지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를 반납하면 프로모션 코드 입력 시 네이버 포인트를 최대 17만원까지 지급한다. 프로모션 코드는 사전알림 신청 고객 대상이다.

한편,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일반 고객은 갤럭시 Z 시리즈 정식 발매일인 8월 7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73개국 3만명이 찾은 ‘네이버 1784’… 전 세계에 AI 경쟁력 소개

업무공간서 운영·검증하는 ‘리빙랩’ 전시 아닌 실제 서비스 운영 실증 공간 글로벌 AI업계 주요인사 잇따라 방문

네이버의 제2사옥 ‘1784’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기술 쇼룸’으로 자리 잡았다. 누적 방문객이 3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곳에서 검증한 AI와 로봇, 디지털트윈 기술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 등 해외 사업으로 이어지며 네이버 AI 전략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4일 네이버에 따르면 2022년 6월 개관한 경기 성남 제2사옥 ‘1784’의 누적 방문객은 최근 3만명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73개국에서 방문했으며, 2400여 차례의 투어가 진행됐다. 하루 최대 방문객은 212명에 달한다.

1784는 일반적인 기업 홍보관과는 다르다. AI와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실제 임직원 업무 공간에서 운영하며 검증하는 ‘리빙랩(Living L



네이버 사옥 ‘1784’.

/네이버

ab)’이다. 기술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며 데이터를 축적하고 기술을 고도화하는 실증 공간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글로벌 AI 리더들의 ‘필수 방문 코스’

1784는 최근 글로벌 AI 업계 주요 인사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도 자리매김했다.

지난 6월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함께 1784를 찾아 AI 기반 스마트 빌딩과 자율주행 로봇 시스템을 직접 둘러봤다. 앞서 리사 수 AMD CEO도 방문해 AI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응고지 오픈조이웨일라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관계자, 미국 국무부·국토안보부 관계자,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 등 글로벌 정책·산업 리더들이 잇따라 1784를 방문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AI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네이버의 기술 경쟁력을 가장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1784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사우디에서 일본까지…‘실증’이 곧 수출

1784에서 검증된 기술은 실제 해외 사업으로 연결되고 있다.

대표 사례가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트윈 프로젝트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은

1784에서 AI와 디지털트윈 기술을 직접 체험한 뒤 협력을 본격화했고, 이후 네이버는 주요 도시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현재는 스마트시티와 AI 인프라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도쿄 미드타운 아에스에 1784에서 검증한 스마트빌딩 운영 기술이 적용됐다. 기존 건물에 디지털트윈과 로봇 서비스를 접목한 첫 해외 사례로, 향후 AI 기반 빌딩 운영 플랫폼 사업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84에서는 현재 100여 개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루키(Rookie)’가 음식과 택배 등을 배송한다. 로봇은 네이버의 클라우드 기반 로봇 브레인 ‘ARC’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어되며,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로보포트(Roboport)’를 이용해 건물 전체를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AI와 로보틱스 기술 고도화에 활용된다.

◆AI 팩토리 시대…1784 역할 더 커진다
네이버는 최근 엔비디아, 브룩필드와

함께 대규모 AI 팩토리 구축을 추진하는 등 AI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생성형 AI 경쟁이 거대언어모델(LLM)을 넘어 AI 인프라와 퍼지컬 AI 경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1784의 전략적 가치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1784는 단순히 기술을 소개하는 공간이 아니라 글로벌 고객과 정부 관계자가 AI를 직접 체험하고 협력으로 이어지는 ‘실물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술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사례를 보여주며 신뢰를 확보하는 네이버의 대표적인 글로벌 세일즈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IT업계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꾸준히 1784를 방문하며 실제 첨단기술과 공간의 융합을 경험하고, 또 실제로 협력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기술들을 도입하며 스마트빌딩 솔루션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넷마블, 日서 신작 3종 선보여… 하반기 글로벌 시장 공략

‘도쿄게임쇼 2026’ 참가

넷마블이 인기 지식재산권(IP)을 앞세운 신작 3종을 일본 도쿄게임쇼(TGS) 2026에서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기존 흥행작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반기 신작 흥행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오는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TGS 2026에 참가해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샹그릴라 프론티어: 일곱 최강종’, ‘펠 인 블루’ 등 신작 3종을 공개한다. 모든 작품은 현장에서 시연 버전으로 제공되며 관람객들이 직접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부스를 운영한다.

넷마블은 올해도 기존 흥행작들이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스’와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가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가고 있으며, 출시 2년 차를 맞은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도 핵심 매출원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상반기 신작 출시에 따른 마케팅 확대와 외부 IP 활용 증가로 비용 부담도 커졌다. 업계에서는 하반기 신작들이 새로운 매출원으로 안정화할 경우 수익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TGS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품은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다. 글로벌 흥행 IP ‘나 혼자만 레벨업’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모바일 로그라이트 액션 RPG로, 원작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성진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사를 선보인다.

‘샹그릴라 프론티어: 일곱 최강종’도 일본 시장 공략의 핵심 카드다. 일본 누적 조회수 10억 회, 코믹스 누적 발행 1700만 부를 기록한 인기 IP를 기반으로 한 태그 교체형 수집 RPG로, 원작 팬층을 중심으로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감성 어드벤처 신작 ‘펠 인 블루’도 처음으로 현장 시연에 나선다. 넷마블은 장르와 이용자층이 다른 3종의 신작을 동시에 선보이며 다양한 글로벌 이용자 반응을 확인할 계획이다.

일본은 세계 최대 게임 시장 가운데 나이자 콘솔과 모바일 게임 소비가 모두 활발한 핵심 시장으로 꼽힌다. 특히 애니메이션과 만화 기반 IP의 영향력이 큰 만큼, 넷마블은 일본 이용자 친화적인 콘텐츠와 체험형 부스를 통해 현지 팬덤 확보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최빛나 기자

KT-연세의료원, 의료 AI 생태계 구축

의료 데이터 표준화 기반 확대 등 수행

KT는 연세의료원과 의료 인공지능(AI) 생태계 리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이 보유한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료 영상, 연구 데이터 등 의료 데이터는 형태와 구조가 다양해 AI가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의료 기관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데이터 표준화는 물론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AI 학습·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해 안전하게 활용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업무 협약은 KT의 김봉균 엔터프라이즈 부문장과 금기창 연세의료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에서 진행했다. 의료 데



KT 김봉균 엔터프라이즈 부문장(왼쪽)과 금기창 연세의료원장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세의료원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 하고 있다.

/KT

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의료 AI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이다.

양 기관은 협력을 통해 ▲의료 데이터 표준화 기반 확대 ▲데이터 활용 인프라 고도화 ▲AI 기반 의료 서비스 적용 방안 연구 등 과업을 수행한다.

/조민선 기자